

7. 朴泳孝의 建白書

——內政改革에 대한 1888年の 上疏文*——

譯者 金 甲 千

일본에 머물고 있는 臣 박영효는 삼가 4번 절하며, 하늘의 용솟는 운명을 통합하시고 지극히 돈독한 인륜을 일으키시는 대군주 폐하께 상소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컨데, 臣의 가문은 世臣의 후예로서, 臣의 代에 이르러 부자형제가 특별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臣의 父子는 폐하께서 내리신 은혜에 감격했고, 그것에 보답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臣의 아버지인 故 判書 臣 元陽은 항상 臣의 형제에게, “온 몸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마땅히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서, 국가를 위한 보답의 길을 찾고 위험이나 어려움을 더하지 말아라.”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때 臣은 나이가 적고 배운 바가 적어, 비록 그 말을 들어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얼굴을 들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聖恩의 만분의 일이나마 마음에 두었으나, 일의 순조로움과 거슬림을 헤아리지 못하여, 감심정변에 이르러 멋대로 경솔한 거사를 행하였지만 천운과 마음이 어긋나, 공적으로는 폐하의 진노를 사고 3국¹⁾의 紛亂을 일으켰고, 사적으로는 헛되이 臣의 부모형제와 친구들을 죽음에 이르게

* 『日本外交文書』本〔史學會編, 『韓國史資料集』V(서울: 一潮閣, 1973), pp. 49-67.〕을 대본으로 하고 『亞細亞學報』本〔朴泳孝上疏文(資料), 『亞細亞學報』, 第1輯(亞細亞學術研究會, 1965), pp. 720-740.〕을 참조하였음.

1) 韓・淸・日을 말함.

했고, 거사는 끝내 나라에 무익하고, 臣은 인정도 의리도 없는 무리와 같은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아가 명을 받고 엎드려 벌을 받지 않았느냐하면, 그 거사가 사실은 忠君愛國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찬탈·반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근세문명국에서 죄를 따질 때는, 그 사정과 원인을 살피되 모호한 것은 따지지 않으니, 臣이 역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며, 위로는 聖世의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臣의 죽음에 오명을 남길 뿐이므로, 저는 명을 어기고 나라를 탈출하여 타국에서 체류하였고, 聖朝²⁾의 문명이 더욱더 새로와져 臣을 역신으로 보지 않을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臣이 때때로 고국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귀국하기를 바랬던 것은, 단지 다시 폐하의 용안을 뵈고 臣의 어리석은 충성심을 내보이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臣의 부모형제의 유골을 찾아 장사지내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臣도 역시 인간인데 어찌 충효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슬픔니다! 하늘이 臣으로 하여금 미미한 충심을 펴지 못하게 하였고 헛되이 외국에 머물게 하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맺혀, 臣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흐느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마음으로 비스듬히 서서 기다렸던 것은, 오직 聖朝의 중흥이었습니다.

臣이, “폐하께서 이미 주일공사를 파견하고, 또 구미에 공사를 파견하여 이미 그 임지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폐하의 슬기에서 나온 것이며 미래를 위한 良策이라고 생각하여 臣은 내심 그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듣기를, “대동조(大東朝)³⁾ 폐하의 연세가 90세를 바라보고, 중궁폐하도 환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경사와 축하할 일이 서로 겹쳤다.”고 하니, 臣이 비록 외국에 있으나 너무 기뻐서 서쪽⁴⁾을 향해 축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조선왕조를 말함.

3) 皇太后나 王大妃를 일컬음.

4) 박영효가 머물고 있는 일본에서 볼 때 조선의 임금이 있는 서울의 방향.

臣이 앞으로 크게 바라는 바는 ‘하나의 국가경사’(一國之慶)이며, 이 경사로 인해 또 다른 경사가 시작되고 또 경사가 겹쳐 무궁무진한 경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臣이 말씀드린 ‘하나의 국가경사’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잘 다스려져서 부강하게 되면, 백성이 신뢰하고 안락하게 되며 교화되고 때때로 새로와져, 상하에 걸림돌이 없고 사람마다 맞는 지위를 얻어 한 해 두 해 天地와 더불어 평안하니, 이것은 동조폐하께서 90세가 되는 경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쇠약해지면 그 국가를 일으켜 흥하게 하고, 백성이 피곤하면 보호하고 일으키며 기강을 다시 일으켜 公私를 혼동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마다 그 분수에 맞게 안정을 이루게 하고 날마다 새로와져 해와 달같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중궁폐하의 병환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臣은 어리석지만 이러한 일만이 정말로 事勢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고질병은 고치기 어렵다.”라고 했으나 臣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道가 있게 하고 법에 느슨한 바가 없게 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병은, 그 실제 증상을 진단하고 알맞은 약을 먹으면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을 거슬러 어긋나게 하면 반드시 옛말에 이르는 바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불변의 이치입니다. 本朝⁵⁾의 흥망성쇠도 역시 ‘다스림’(治)과 ‘다스리지 못함’(不治)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萬國의 관심이 本朝에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어찌 하루라도 이 道를 講究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의 총명으로 어찌 이것을 상세히 밝히지 않겠습니까만, 臣은 감히 간략히 그 방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朝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거의 500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중엽부터는 국세를 떨치지 못하여, 동쪽으로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는 淸朝가 일어나는 등 전쟁이 거듭 일어나면서 점차 쇠약해져, 근

5) 조선왕조를 말함.

세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대체로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극한에 이르면 멈추게 되고, 멈춤이 극한에 이르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천지자연의 지극한 이치입니다. 어찌 극한에 다달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 폐하께서는 이와 같이 나라가 쇠약해진 후 위태롭고 혼란한 때에 왕업을 이으셔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먹으시면서’ 政事에 부지런하시고 나라의 일을 근심하셔서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려고 하시지만,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과 국가가 더욱 곤란해진 것은, 폐하를 보좌하는 신하가 그 지위에 알맞는 사람이 아니고 治國의 요체를 알지 못하여 다만 자신과 집안의 부귀만 살피고,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전과 위험은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신하들은 백성의 고혈을 빨고 나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즐겨 충신과 어진이를 배척하며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꺼리지 않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게 하고 관직을 공개적으로 팔아, 上下가 재물을 탐하고 公私의 구분이 모두 없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고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자의 관직이 지방의 守令에 이르고, 충신과 어진이를 배척하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의 관직이 재상에까지 이르러,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되어 부모형제와 처자식이 서로 만나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굶어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얼어죽고, 어떤 사람은 恨을 참지 못하여 화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약과 의사를 얻지 못해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도적이 되었다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나라 한 가운데에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실상이 정말 이와 같으니, 제가 어찌 감히 없는 사실을 꾸며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폐하께서 그 간사한 재상과 탐관오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신다면, 비록 폐하의 정성을 다하신다해도 일은 마침내 성과가 없고 도리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臣이 성인의 경전과 옛 史書들을 살펴보니, “창고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

진 말이 있는데, 백성들의 얼굴에는 배고픈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있는 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은 맹자께서 훈계하신 바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방장관(宰)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데 장관이 밭과 들을 황무지로 변하게 하고 인민의 수를 감소시키고 뇌물을 써서 명예를 구하려 한다.”고 한 것은 제(齊)나라의 왕이 愨했던 바입니다. 또한, “강대국들과 사방으로 이웃해 있으면서 서로 道가 없으면, [그 나라는] 즉시 법령이 실행되게 해야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하며, 군사와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병사를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백성이 상부충(上)과 뜻을 달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죽으려 하지 않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려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자기나라(吾)의 명령을 두려워 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두려워 할 것이다.”고 한말은 孫吳⁶⁾兵法에서 우려했던 바입니다. 무릇 나라를 이끌고 군사를 다루는 일은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그 이치는 같으며 옛날과 지금이 다를 바 없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거울삼지 않으십니까? 폐하께서는 또한 평안히 궁궐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좌우신하와 더불어 한가히 즐기시니, 어찌 스스로 안락함을 찾으시면서 민간백성의 어려움은 살피지 않으십니까?

臣은 폐하를 위하여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니, 무릇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 백성이 장차 어디를 향하여 하소연하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장차 반드시, 그들이 친애하지 않는 쪽에는 등을 돌리고 친애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姜太公이, “나라는 제왕의 것이 아니라 人民의 나라이니, 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이익을 같이 나누는 자가 나라를 얻고, 나라의 이익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자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릇 일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을 행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얻으면 좋은 것이고 그 목적을 얻지 못하면 나쁜 것입니

6) 孫武와 吳起를 말함. 두 사람 다 춘추시대의 兵法의 대가이다.

다. 그러면 대체로 政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대한 湯임금이 桀왕을 토벌했을 때 夏나라 백성은 기뻐했고, 周나라의 武왕이 紂를 정벌했을 때 殷나라의 백성은 비난하지 않았으니, 湯・武가 나라를 얻었던 까닭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桀・紂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까닭은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 이르기를, “지금 왕이 여기서 북을 치며 음악을 즐기는데 백성들은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머리를 흔들며 얼굴을 찡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의] 극도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금 왕이 여기서 북을 치고 음악을 즐기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이 아마도 병환이 없으신가 보다. 어찌 저렇게 음악을 잘 즐기실까?’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왕이 음악을 즐겼기 때문이다. 무릇 제왕이 無道하여 지위를 잃게 되면 비록 庶民이 되기를 원한다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제후가 道가 있어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 비록 땅이 사방 백리라 할지라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폐하께서 백성과 같이 즐기지 않고 홀로 즐거움을 독차지 한다면, 아래로는 반드시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고아와 구렁에서 텅구는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가 있을 것이니, 만약 大眼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광경을 보게 한다면, 어찌 한 사람⁷⁾의 편만한 즐거움으로써 나라 전체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곧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이 발꿈치를 이어 일어날 것⁸⁾이니, 반드시 聖朝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왕족간에

7) 왕을 말함.

8) 接踵而起. 밀집해 있는 모습을 말함.

화목하지 못하면 왕조가 뒤집어지고, 나라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고, 『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근본을 굳게 하고자 한다면 곧 백성을 화합시키고, 백성을 화합시키려 한다면 백성을 즐겁게 하고, 백성을 즐겁게 하려 한다면 백성을 안정되게 하고, 백성을 안정되게 하려면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위로하려면 그 백성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백성에게 仁義의 정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며, 제왕과 백성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릇 상하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했는데도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趙나라의 尹鐸이 晉陽城을 지키고 있을 때, 3국의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물을대어, 성벽이 3판⁹⁾(板)의 깊이만 남기고 모두 물에 잠겨 부엌에 개구리가 들끓어도 백성들에게 반란의 뜻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윤탁이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가르치고 친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현명한 이와 聖人은 道로써 백성을 가르치며, 의리로써 다스리고, 예로써 움직이게 하며, 仁으로써 위로하는 것이니, 이 4가지 덕행을 닦을 것 같으면 나라가 흥하고, 그 덕행을 없앨 것 같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폐하의 총명으로써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어떤 이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알면서도 그를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의 간사함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를 내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과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통사람이라 할지라도 仁·義의 마음과 과감성이 없을 것 같으면 세상에 서서 살아갈 수 없을텐데, 하물며 제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때’(時)란 ‘바로 지금’(今時)뿐이다. ‘바로 지금’

9) 길이의 단위. 10자(尺) 또는 8자.

외에는 다시는 ‘바로 지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루를 늦출 것 같으면 하루만큼의 해악이 있고, 하루를 빨리 할 것 같으면 하루만큼의 이익이 있으니 어찌 헛되이 時日을 연기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극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웃에 한 나라¹⁰⁾가 있어서, 우리 조선과 같은 人類로 똑같이 비와 이슬의 혜택과 해와 달의 빛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땅덩어리의 넓이에 있어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생산되는 물화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심하지 않으나, 다만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開明의 道를 취하여 문화와 기예를 닦고 무장을 갖추어, 다른 부강한 국가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어리석고 우매하며 술에 취하고 미친 것과 같아서, 세계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여 온 천하로부터 모욕을 자초하고 있으니, 이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臣이 비록 배우지 못하여 아는 바가 없고 세계사정에 어두우나, 이러한 조선의 사정은 부끄럽고 근심되는 바입니다. 또 천하의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이 어리석음과 우매함, 술취함과 광기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한다면, 진실로 뜻있는 자 중에 그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본래 어리석어서,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해도 남의 얼굴은 볼 수 있고, 자기의 소리는 알지 못해도 남의 소리는 알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은 헤아리지 못해도 남의 단점은 헤아릴 수 있는 까닭에, 비록 자신이 괴상한 모습을 지녀도 자신의 추함을 알지 못하고, 비록 자신이 道를 어겨 악을 행하여도 자신의 포악함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게도 자기 삶을 즐겨 부끄러움을 모르니, 이것은 자기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我)에게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을 꾸짖으면 노하여 기

10) 일본을 말함.

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첨하고 칭찬하면 웃으면서 기뻐하여 어리석
 게도 자신을 믿어 스스로 영웅인체하니,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면 곧 자기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니, 어찌 남을 속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므
 로 사람은 자기자신에게 돌아가, 거울삼고 옳고 그름과 선악을 헤아려서
 자신의 장단점을 알 것 같으면 곧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니, 어찌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曾子께서는, “하루에 세가지씩
 내자신을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맹자께서는, “남을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친하려 하지 않으면 자신의 仁을 돌이켜보고, 남을 다스리
 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보고, 예로써 남을 대우
 했는데 그들이 답하지 않으면 자신의 敬을 돌이켜보고, 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자기자신에게 그 허물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엇드려 청하옵건데, 폐하께서는 하루에 세가지씩 자신을 반성하시고
 행함에 있어, 성과가 없을 때는 모두 폐하의 마음에서 그 허물을 찾으십
 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안 연후에, 현명한 자를 가
 까이 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 하여 백성과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빨
 리 부흥을 도모하여 세상에 성덕의 빛을 발하십시오. 무릇 현명한 인
 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마치 대낮에 큰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
 고, 간사하고 어리석은 자를 등용하여 정치를 하면 마치 컴컴한 밤에 산
 과 계곡을 걷는 것과 같으니, 정치의 어려움과 쉬움은 지혜있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있는 자를 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臣은 어리석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감히 8조항을 아래에 나열했으며, 스
 스로 이름하기를, ‘현재의 시급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하였고, 또 이
 르기를, “범상치 않은 일을 해야 이후에 범상치 않은 功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이란 것은, 천신만고 끝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
 면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공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폐하께서는 이 말을 역적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어 의심하지 마소서. 臣이 글을 씀에 있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워 말이 많고 중복되었으며 혹 공경(敬)을 잃었으니, 臣은 지극한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개국 497년 1월 13일

1. 세계의 形勢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옛날 戰國時代의 列國들과 같습니다. 한결 같이 兵勢를 으뜸으로 삼아,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병합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軍備를 강구하는 한편, 아울러 문화와 技藝를 진흥하여, 서로 경쟁하고 채찍질하며 앞을 다투지 않음이 없습니다. 각국이 自國의 뜻을 공고히 하여 세계에 위력을 흔들어 보고자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폴란드와 터키가 본래 약한 나라가 아니었으면서도 모두 자국의 곤궁과 혼란으로 인하여, 때로는 분할을 맞보고 때로는 영토를 삭탈당하여 다시 흥성해질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萬國의 국제법(公法)과 세력균형(均勢 balance of power), 公義¹¹⁾가 있긴 하지만, 나라에 自立・自存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을 초래하게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법과 公義는 본래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開明하고 강대한 나라로서도 역시 패망을 맞보았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개명하지 못한 약소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구라파인들은 입으로는 법과 도리(義)를 일컬지만 마음속으로는 야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3,4백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합병하고 삼켜버린 지역이 곧 남・북아메리카주요, 아프리카주요, 남양군도요, 오스트레일리아주이며, 점차 우리 아시아의 땅에 이르러서

11) 국제적인 도리나 신의를 말하는 것 같다.

는, [그들이 합병하고 삼켜버린 지역이] 土斯坦¹²⁾이요, 인도요, 버마요, 淸의 靉靉강성이요, 홍콩이요, 일본의 사할린 섬인 바 이미 아시아 주의 반을 넘었으니, 아시아로 말하자면 남은 땅이 상실된 땅에 미치지 못하고, 세계 전체로 말하자면 남은 곳이 열 곳 중에 한 곳 남짓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여전히 만족해 하지 않고 도리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그들의 의도는 과연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시아주 동부에 있어서는 鴻臚성씨가 결정되는 때이며, 우리 동족에게 있어서는 뿔쳐 일어나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시아주 민족들은 게으르고 부끄러움이 없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해 가고자 할 뿐, 전혀 과단성 있는 기상이 없으니, 이것이 臣이 한심하게 생각하여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동쪽으로 침범하고자 하여, 산을 뚫고 길을 열어 동쪽 해안에 도달하고서는, 여러 나라의 형세를 살펴본 후 우리에게 軍備가 없는 것을 보고, 먼저 우리나라의 서북지방으로 진출하여 함경도·평안도 양도를 침략하고, 일본해(동해)와 황해의 水利에 의지하여 세나라(韓·中·日)의 양 무릎을 꿇음으로써 아시아주의 禍福을 쥐고 흔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이미 끝장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뿔쳐 일어나 난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러시아는 비록 군주 독재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와 법질서는 우리나라보다 나으므로, 우리나라의 인민이 일단 그러한 정치와 법질서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된다면 다시는 우리 조선의 부흥을 달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는 아시아 각 국 가운데서도 국세가 번창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였지만, 국내의 혼란과 軍備의 결여로 인하여 영국에게 점령당하였는데, 인민들이 영국정부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스스로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영국의 법률이 관대하고 정치가 공평정대하여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편하다 생각하므로, 영국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시 혹독한 [인도의]

12) 확인할 수 없음.

정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臣이 살펴보건대, 아시아주는 천하의 靈氣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교, 불교, 예수교 및 이슬람교의 교조들이 모두 여기서 출현하였던 바, 옛적의 흥성했던 시기에는 文明이 없는 땅이 아니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도리어 구라파에게 양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컨대, 여러 나라의 정부가 백성을 노예와 같이 보아, 仁・義・禮・智로서 그들을 이끌고 문화와 技藝로써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에, 인민이 어리석고 부끄럼을 모르게 되어, 남에게 점령을 당하더라도 치욕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재앙이 곧 닥치려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인민의 잘못의 아닙니다.

『中庸』에 이르기를, “모든 일을 미리 하면 서고, 미리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니, 말은 미리 정해지면 막히지 않으며, 일은 먼저 정해지면 곤란을 당하지 않고, 행동은 미리 정해지면 고통스러워 하지 않게 되고, 道가 미리 정해지면 곤궁해지지 않는다.”고 하였거늘, 아시아주의 諸政府를 위해 꾀해야 할 자들이 어찌 구차히 안일하게 消日할 수 있겠습니까?

2. 법률과 기율(法紀)을 부흥시켜 백성과 나라를 안정시키십시오.

법률이라는 것은, 인민의 개인적 행동과 남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규범이며, 바른 이치를 권면하고 그릇된 악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편파적이지 않고 치우침이 없게 하여 단지움고 그름만을 판별하여 다스려서, 죄가 있으면 비록 신분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하고, 아끼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을 집행해야 하며, 죄가 없으면 비록 천한 자라 할지라도 억눌러서는 안되고 미워하는 자라도 박절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 어른, 가난하고 천한 자, 부유하고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 몸과 목숨은 하나인 것입니다. 일개 가난한 아이로서 헤진 옷을 걸친 자라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함에 있어서는 곧 제왕의 소중한 傾地와도 같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법률의 본 趣旨는 그것의 집행을 강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大學』에 이르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訟事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도] 남과 같으나 [나는]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를 갖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말을 다할 수 [없어 송사가] 없게 되는 까닭은 [위정자가 자신의 덕을 밝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감히 거짓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때문이며, 이를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규범과 조례를 정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일정한 기준을 갖게 하므로써 그들을 道와 이치, 그리고 化民成俗으로 인도하여 범죄가 없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법을 제정하고 형을 집행하더라도 반드시 仁・義・信을 근본으로 여기는 것인 바,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仁을 해치고, 처벌을 억지로 시행하여 義를 무너뜨리며, 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 信을 잃음으로써, 인민의 마음이 지조없이 나약하게 되거나, 완고하고 포악하게 되거나, 또는 의심을 품고 동요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야만스런 나라의 미개한 정치인 것이며, 仁으로써 법을 운용하며 인민의 마음이 안온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문명국의 開明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仁으로써 사람들을 보살피고, 義로써 사람들을 다스리며, 信으로써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이 세가지 길을 밝혀 그르침이 없게 될 것 같으면,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면서도 법도가 해이해 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면서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와 질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스스로를 責하는 諭示를 백성에게 내려 보내신 것이 여러번이셨음에도, 끝내 폐하의 유시를 실천하지 않으셨던 까닭에, 백성은 더욱 의심을 하고 법률과 기율은 더욱 해이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백번 유시를 내려보내셔도 백성은 그것을 믿지 않고, 서로 ‘우리 임금님이 또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말할 것이니, 무릇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政令은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백관을 인솔하시어 宗廟에 제사지내고, 天神과 地神에 이르러 다섯가지 일을 서약하시어 이르시길, “짐은 이제 天命을 삼가 받들어 다섯 가지 일을 서약함으로써 나의 백성을 다스리고 나의 나라를 보호하러 한다. 만약 이 큰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나의 백성을 위태롭게 하고 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 짐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도적과 같이 불 것이다. 모든 臣民들은 삼가 다음의 命을 받들라: 첫째, 善行을 하는 자와, 재주와 덕이 있는 자는, 비록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상을 주고 등용할 것이다. 둘째, 惡行을 하는 자와, 재주와 덕이 없는 자는, 비록 귀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벌을 주고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세째, 형벌을 줄이고 과세를 가볍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艱難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네째, 농업과 蠶業을 권면하고 공업과 상업을 진흥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다섯째, 文德을 도야하고 武備를 가다듬어, 백성은 편안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십시오.

서약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먼저 궁중에 신뢰를 확립하여 조정에 미치게 하고, 나라에 신뢰를 확립하여 천하에 미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실 것 같으면, 나라 안에는 법을 어기는 자가 결코 없게 될 것이고, 천하에도 또한 약속을 배반하는 나라가 없게 되어, 모든 일이 폐하의 뜻에 따라 형통하여 질 것입니다. 무릇 治國과 立法의 요체는 신뢰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신뢰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臣은, “법은 세상의 정황을 따라 알맞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법도에 의거하여 점차 좋은 법도로 나아가야 하며, 갑작스런 변화는 적절치 못하여 우환과 소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과 나라를 크게 유익하게 하며 옛 법도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을 경우, 시끄럽고 어지러운 분분한 논의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면, 후에 다시 고치지 않더라도

점차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모든 경우의 訟事와 대소 경중의 죄는 다만 재판관에게 맡겨 판결케 하여야 하며, 임금의 권한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기쁨·성냄·슬픔·즐거움·두려움·걱정으로 인하여 그 常道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형벌을 내리고 죄를 판결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처단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② 혹독한 형벌을 폐지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이 혹독한 까닭에 나라의 主權을 외국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 ③ 죄인의 처자식까지 죽이는 법을 폐지하여 범죄 당사자만을 다스리고 부모·형제·처자에게는 벌이 미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 ④ 죄인을 심문할 때 함부로 형을 가하여 무죄인데도 강제로 죄를 자백받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록 죄인에게 자백의 다짐을 받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스스로 그 죄를 아뢰게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혹한 형벌로 인해 강제적인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⑤ 대소 경중의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죄의 증거를 밝혀 죄인이 스스로 자백한 연후에 옥에 가두고 형을 집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야만스런 미개한 나라에서는, 인민이 옥에 갇히고 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⑥ 포도청에서 고문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숨기는 것과 같은 관행을 폐지하는 일입니다. (형을 받아 죽은 자의 부모·형제·처자라 할지라도, 그가 옥에 구금되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모르니, 어찌 불법적이고 잔인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 ⑦ 재판을 하여 형을 결정할 때는 그것을 비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소에] 들어가 방청하게 할 것 같으면, 재판관이 잔인한 형벌로써 사사로움을 용납하려고 하는 일이 저절로 줄어들 것이라는 일입니다.
- ⑧ 징역의 법을 정하고 징역의 장소를 설치하며, 최고로 중한 죄가 아니면 죽여서는 아니되고,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징역을 살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 ⑨ 포도청을 폐지하고 巡廳에 대해 그 規例를 增削하여 警巡士 2만명

을 둘 것 같으면, 잠시 동안은 충분히 민심을 계도하고 민간의 사정을 살피며, 폭행을 억누르고 급한 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 ⑩ 재상·사대부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私刑을 행하는 것을 엄금하며, 비록 자신에게 속한 子弟나 노비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적인 재판장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 ⑪ 인민으로 하여금, 돈을 꾸어주고, 갚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관한 모든 약속과 증빙의 글을 소상히 하는 데 힘쓰게 하고, 아울러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훗날의 訟事에 곤란이 없게 하며, 글의 증거가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 ⑫ 귀하고 천한 [각 계층의] 묘소를 각처에 정해 다른 곳에는 묻는 것을 금하여, 입야에 대한 송사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훗날의 採鑛 일에 곤란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3. 經濟¹³⁾로써 백성과 나라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나라에 있어서 財貨는 사람에 있어 몸 속의 津液과 같습니다. 사람이 血과 氣를 보호하고 길러, 그것들이 전신을 흘러 통하고 막혀 흐르지 않는 일이 없으면 건강하고 굳세게 되며, 나라가 생산물을 증산하여 운반과 수송을 원활하게 하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을 증산하고 그것의 운반과 수송을 원활히 하려 한다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하며, 힘써 일하고, 농업, 공업, 어업, 수렵업, 목축 등을 진흥시켜 산과 들, 강과 바다의 利를 취하며, 금·은의 화폐를 만들어 상품의 유통과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商社와 은행을 설립하여 저축과 무역을 수월하게 하며,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여행자와 車馬의 편의를 도모하고, 강과 바다, 하천과 도랑의 수로를 보수하여 배와 뗏목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도 衣·食·住의 세가지가 주요한 것이어서, 재산을 증식하고 富를 이루어서 필요한 용도에 공급하

13) 원래 ‘經國濟民’(나라를 짜임새 있게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함)의 뜻으로 쓰여졌으나, 여기서는 ‘economy’의 번역어인 ‘經濟’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致富의 길은, 소박과 검소로써 집안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비축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절제가 있어서 운반, 수송·매매의 길이 편리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매매의 道라는 것은, 단지 나라 안에 물품을 나눠 보내어 세간에 서 모자라는 것을 공급하고,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을 고르게 함으로써 사람의 편리를 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물품을 밀바탕으로 하여 세상의 文明開化를 돕고, 사람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며, 인류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여 태평 무사한 관계를 보전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남에게 의존해야만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여서,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고 왕래를 하여 그들 각자의 장점으로써 서로 도와주는 것인 까닭에, 어떤 사람은 선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工人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 되어, 오고 가고 서로 교제하느라 바빠 뛰어 다니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따지고보면 우리들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한 개인을 돌아보지 않고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반드시 곤궁하고 구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고 없는 산물을 서로 유통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의·식·주를 대기 위해 수천만의 인원을 각처에 흩어져 일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어찌 지극히 기이하고 지극히 묘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에 반하여, 농업과 공업에 힘쓰지 않고 어업, 수렵과 목축을 장려하지 않으면, 화폐는 신용할 수 없게 되고 저축은 불가능하게 되고, 강과 바다 및 도로에 있어 그 막힌 곳을 개통시키지 않아 배와 車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없거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있고 없는 물품을 유통하지 못하게 되고, 인민은 서로 親交하지 못하게 되어 艱難과 고통을 불러들인다면, 이는 백성을 멸하

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에 밝은 나라는 耕作을 권면하고 공업을 복돋우며, 목축을 장려하고 어업과 수렵에 힘써 널리 세계와 통하게 하여, 떠도는 백성이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영토는 비록 적을지라도 인민은 많고 수명 또한 깁니다. 이는 인민에게 식전이 있고 온갖 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모두 그러합니다. 한편, 이 이치에 어두운 나라는 게울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이웃나라와 통하지 않아 유랑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토지가 비록 넓을지라도 인민은 희소하고 수명 역시 짧습니다. 이것은 인민에게 식전이 없어 온갖 기물이 없거나 부족해서 생긴 결과이며, 야만족과 無來由¹⁴⁾족 등 모두 그러합니다.

대체로 부귀와 입신출세에는 두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자기의 心力을 기울이며 겸하여 남에게도 이익이 있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손해를 입혀 자신을 운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뢴 바와 같이, 개명한 사람들은 각자 옳고 그름을 알아서 남을 해쳐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개인적으로 소유한 財寶를 계산하여 밝힐 수 있어 몇몇하게 내보이니, 일을 꾸려나가는 것(營業)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愚昧한 사람들은 禮・義・廉恥를 모르고 본능적인 욕심에 몸을 내맡겨, 남에게 포악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이롭게 하고, 그들이 사유한 財貨를 백성들이 계산하여 밝히지 못하도록 몰래 감추어 두니, 일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나라에 道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부유하고 존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大學』에서 이르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것에 道가 있으니, 나라에 유랑하는 백성이 없으면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조정에 幸位(요행으로 얻는 벼슬)가 없으면 [생산물] 먹어 치우는 것이 적을 것

14) 팔레이족?

이며, 농사의 때를 침탈치 아니하면 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가는 것을 조절하면, 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완만하게 되어 재화가 항상 충분하게 될 것이다. 仁者는 재물을 풀어서 백성을 얻고, 不仁者는 몸을 망침으로써 재물을 불린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길, “군자는 먼저 德에 있어 삼가해야 한다. 덕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이에 재화가 있게 되고, 재화가 있으면 이에 그 쓰임이 있게 된다. 덕은 근본이고 재화는 말단인 것이다. 근본을 곁에 두르고 말단의 것을 마음속에 품는다면, 이는 백성을 싸우게 하고 약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재화가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화가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말(言)이 부정하게 나가면 역시 부정하게 돌아오고, 재화가 부정하게 들어오면 역시 부정하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富를 도모한다면, 勞心焦思하여도 도리어 곤궁함에 이를 뿐이니, 생각컨대 이는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그 말단의 것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의 致富의 근본은 쓸쓸함을 줄이고 힘써 일하는 것이며, 한 나라의 치부의 근본은 곧 백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재화를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지 않은 채, 남이 勞役한 것을 먹어 대다면 이는 남의 功을 탈취하는 것이어서, 그 해가 온 나라에 미치어 나라의 빈궁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일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 두가지가 서로 용납되지 않음은 물·불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는, 마땅히 전력을 다하여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官祿・治安・軍務・營繕・衛生教育 등이나 유공자에게 포상하는 데 쓰는 것은 옳지만, 법령을 가혹하게 하여 백성의 通義¹⁵⁾를 해치거나, 국가 방위에

15)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변의 도리. 본고 p.54. 참조.

실책을 하여 나라의 치욕을 불러 들이거나, 명분이 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백성을 꺾박하거나, 문득 전염병이 돌아 사망에 퍼지게 하거나, 교육에 마음이 없어 인민이 固陋하게 되도록 하거나, 四窮¹⁶⁾을 돌보지 않아 구렁에 굴러 떨어지게 하거나, 실적없는 관리에게 녹을 주거나, 공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무익한 토목 역사를 일으켜 공공의 재화를 소비한다면, 이는 백성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이니, [이러한 실책을 범하는 정부를] 政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저 인민이 세금을 내고 나라를 위하는 본뜻은, 자신과 집안의 행복과 안녕을 보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政府를 운영하는 자¹⁷⁾는, 마땅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존해야 하며, 유식한 군자는 높은 大夫의 자리에 앉게하고 무식한 소인은 천한 隸僕¹⁸⁾의 자리에 앉게하여, 관직의 품계에 따라 祿擗을 알맞게 나눠 주어서, 각자가 자신의 분수에 안주하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가 바로잡힐 수 있어서, 백성은 정부를 의지하고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급 관리에게는 녹을 후하게 하고 지위가 높은 大夫의 녹은 박하게 한다면, 이것은 『大學』에서 이르는 바, “그 후하게 대하여야 할 자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박하게 대하여야 할 자에게는 후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넉치고 위에서는 부족하고, 위에서는 궁하고 아래에서는 교만하여, 배품과 위엄¹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公²⁰⁾을 행하기가 어렵고, 上下가 서로 이기려 들며, 탐욕과 포악이 뒤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그들의 본래의 뜻을 이루지

16)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이를 말함.

17) 왕을 일컬음.

18) 無知小人 列於下隸. 여기서 ‘隸’는 종 또는 下人이 아니라 하급 관리를 칭한다고 생각된다.

19) 恩威. 이것은 ‘상하관계의 질서’를 의미한다.

20) ‘公’ 역시 ‘상하관계의 질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를 입게 되어 艱難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화란이 갑자기 발생하여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지는 일이 왕왕 있었읍니다. [어찌 이를] 거울삼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또, 인간의 性情은 막힘(窮)과 통함(達)²¹⁾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며 애쓰는 까닭에 통하게 되지만, 통하게 되면, 더이상 애쓰지 않으므로 다시 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富하고 貴하게 되어서도 빈궁함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만사가 형통하고 위태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의 부강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크게 바라는 바이지만, 더러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많이 생각하며 애쓰는 것과 애쓰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 ① 관직을 팔고 지위를 파는 일을 금지하여 근본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관직을 팔 것 같으면, 관리는 반드시 백성[의 재산]을 탐하게 되어 관직을 사는 데 들인 비용을 메꾸려들 것이며, 지위를 팔게 되면 그 지위는 반드시 천해져서 나라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직과 지위를 팔 것 같으면, 더러 사기를 원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부유한 백성에게 관직과 지위를 받을 것을 강요하여, 만약 순순히 받지 않으면 포도청에 가두고 올려서 그 값을 내게 하니, 이것은 강제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 ② 군주의 祿俸을 정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황제에게 무제한의 주권이 있지만 역시 [녹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 ③ 낭비를 절제하고, 쓸모 없는 관원을 가려내며, 관원의 녹봉을 고쳐 정하여 그 직책에 알맞게 하는 일입니다. (관직의 봉록이 박하고 스스로를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하면, 반드시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 ④ 戶口를 상세히 기록하여 歲入과 歲出을 산출하는 데 편리하게 하십시오.
- ⑤ 戶의 차례를 정하여 統家의 제도를 개정하는 일입니다.

21) 여기서 窮과 達은, '뜻을 이루지 못함'과 '뜻을 펴'의 의미에 가깝다고 본다.

- ⑥ 地租(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를 다시 조정하고 地券(토지 소유권의 증명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 ⑦ 길이, 양, 무게의 단위를 통일하는 일입니다.
- ⑧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토지를 파는 것을 금하는 일입니다.
- ⑨ 법을 만들어, 遊民을 금하고 사람의 고용 가격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고용 가격을 하나로 통일시켜 정한다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구별이 없게 되어, 비록 부지런히 일해도 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게으른 자와 더불어 똑같이 게을러 질 것입니다.)
- ⑩ 세금을 적게 걷고 관용으로써 그 법을 실행하여, 치우침이 없게 하는 일입니다.
- ⑪ 농업과 蠶業을 장려하고, 영농법과 농기구 사용의 이로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 ⑫ 양을 기르게 하여 앞으로의 의복을 만들게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양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입니다.
- ⑬ 여섯 가지 가축을 의무적으로 기르게 하는 일입니다. (비록 소가 많으나, 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의 수가 적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 서양말의 종자를 얻어 번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⑭ 공업과 상업을 일으키고, 그 방법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 ⑮ 어업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무궁한 이익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 ⑯ 수렵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백성의 위험을 구제하는 동시에 팔 수 있는 훌륭한 품목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 ⑰ 山林司를 설치하여 산림과 하천, 연못을 수선하고 다스려서 목재·멜감·물고기·자라의 결핍을 면하게 하고, 또한 산과 하천의 沙汰로 인한 전답의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 ⑱ 堤堰司로 하여금 제방을 고치고 쌓게 하여 수해를 면하게 하고, 물을 댐으로써 가물을 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⑲ 濬川司로 하여금 항상 水利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홍수나 붕괴를 면하게 하고, 배나 노트는 배의 통행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⑳ 治道司를 두어 항상 길과 다리를 고치게 하는 일입니다.
- ㉑ 백성이 개인의 돈으로 물길을 트고, 길을 수리하고, 다리를 설치하여 해당 장소에서 貰錢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 ②② 내륙과 섬지방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 ②③ 금·은·동·철·석탄의 광산을 크게 열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감독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②④ 금·은·동·철을 제조하여 當五錢²²⁾의 폐단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 ②⑤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녹이는 것을²³⁾ 금하는 일입니다.
- ②⑥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革罷로 인해 백성의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이지만 다시금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 ②⑦ 은행을 세우는 일입니다.
- ②⑧ 利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 ②⑨ 郵程局을 다시 설치하는 일입니다.
- ③⑩ 舟橋司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정책을 중흥케 하고, 등대와 浮標를 바닷길에 설치하는 일입니다.
- ③⑪ 백성이 商社를 설립하는 것과, 외국의 각 부두에서 장사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 ③⑫ 백성이 육상운송 商社를 설립하는 것을 돕거나, 혹은 관청에서 설립해서 육지내의 상품수송을 편리하게 하고, 또한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없애는 일입니다.
- ③⑬ 京城의 開市場²⁴⁾을 철폐하고 외국인들을 내보내어, 우리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③⑭ 밤에는 도로변에 등을 설치하여 행인들을 편하게 하고,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는 일입니다.
- ③⑮ 巡邏의 금지²⁵⁾를 풀어 백성들이 밤에 장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 ③⑯ 官에서 통용화폐의 교환가치와 갖가지 물품의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③⑰ 어떤 물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도매상이 이익을 독점하므로써 백성

22) 1883년(고종 20년)에 국가재정의 궁핍을 구하고자 주조하여 1894년 군국기무처에서 새로운 화폐를 제정할 때까지 사용되었음.

23) 주화의 실물 가치가 통화 가치보다 높을 경우 화폐를 녹여서(鑄錢) 器物을 만들기도 했다(鑄器).

24)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허가하여 시장을 개방한 곳.

25) 통행금지

의 생활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단 처음 시작의 경우에는 이를 허락해도 무방합니다.)

③⑧ 紅蔘의 [판매]금지를 풀어, 譯官으로 하여금 商會를 세워 蔘의 出品을 증가하게 하는 일입니다.

③⑨ 서북인들로 하여금 장백산의 목재를 취하게 하고, 그 대신 어린 나무를 심게 하는 일입니다.

④⑩ 청나라의 비단·도자기, 일본의 칠기·그림·조각·구리·철·화웨·정원 등의 교사를 고용하여 인민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④⑪ 인민에게 여관·의류점·음식점을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일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이 세가지 것이 가장 번성하고 있습니다.)

④⑫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빚을 포탈할 것 같으면 단지 본래의 죄인에게만 그것을 보상하게 하고, 族徵이나 洞徵으로써 一族이나 一洞을 빈곤에 이르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록 본래의 범인과 관련된 부모·형제·척자라도 역시 강제로 빚을 갚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④⑬ 새롭고 낡은 물건의 매매의 규정을 경하여,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 절도가 발생할 우려를 적게 하는 일입니다.

④⑭ 백성 중 장성한 자나 어린이들에게, 납세하여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납득하게 한 연후에 농민·기술자·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지금의 급한 일에 쓰게 하는 일입니다.

4. 백성의 몸을 건강하게 보살핌으로써 백성을 굳세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몸을 건강히 한다는 것은, 血을 보존하고 기르며 血이 흐르고 통하여 막힘이 없으며 신체를 왕성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디 깨끗하게 살고, 더러움을 멀리하며, 음식에 절도있고, 운동하는 것은 곧 건강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의 큰 의의는, 衣食住 세 가지 일로써 요지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의복으로 추위와 더위를 고르게 하여 동상이나 더위에 의한 상처로부터 벗어내고, 먹고 마시에 있어 배고프고 배부른 것을 적절히 하여 마

르거나 비만해지지 않고, 주거를 움직임에 편하게 함으로써 닫혀 막힘으로부터 벗어나며, 안으로 혹시라도 질병이 일어나는 일이 있거나 밖으로부터 혹시라도 오염된 것의 침입이 있다면 곧 의사나 약으로써 그것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이 왕성하고, 힘이 세고, 마음은 넓고, 몸집이 크고, 행복을 누리며, 오래살고, 인구가 늘어남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문명국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보살필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의복을 고르게 하지 못하여서 동상이나 화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마심에 절도가 없어서 마르거나 비만해지며, 주거가 불편하여 닫혀서 갇히며, 안으로 자주 질병이 있고 밖으로부터 더럽혀지나 의사나 약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쇠퇴하고, 힘이 약해지고, 정신이 나약해지며, 신체는 파리해지고, 혹독한 고통은 많아지며, 빨리 죽고, 인구는 감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야만국 사람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때문이었습니까? 하나는 불학무식 때문이며, 또 하나는 박학다식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 곧 멀리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타고난 본성에 맡겨, 하는 것이 어린애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넓게 배우고 아는 것이 많으니, 곧 일의 이치에 도달하여 천지의 오묘한 이치를 연구할 수 있고, 더욱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밝게 드러낼 수 있으므로, 타고난 본성을 조절하고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의복은 깨끗한 것을 좋게 여기고, 음식은 깔끔한 맛을 좋게 여기며, 거처는 높고 넓은 것을 좋게 여기며,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잠을 자며, 때가 아니면 먹지를 않습니다.

궁자께서는, 음식에 있어서, 쉬고 상하거나, 물고기가 썩었거나, 고기가 부패한 것은 먹지 않으셨고, 색깔이 나쁘거나, 냄새가 나쁘면 먹지 않으셨으며, 익힌 것이 알맞지 않거나, 식사때가 아니면 먹지 않으셨으며, 고기가 비록 많아도 먹고싶은 육구를 다 채우지 않으셨으나, 오직 술에 있어서는 제한된 양이 없으셨으며, 어지러워짐에 이르지는 않으셨

입니다. 이것은 성현께서 먹음에 절도가 있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했던 법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의 책략을 따르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맞고 그 본성에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비록 땀에 젖고 더러운 것이 달라붙은 옷일지라도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부패하고 쉰 음식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으며, 막히고 낮고 좁은 집일지라도, 그 위에 오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더러운 증기가 올라오는 것은 두려워할 바가 못된다고 하며, 땅이 낮아 습한 기운이 올라온다 해도 피할 바는 못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열번을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낮에 자고 밤에는 잠자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몸을 씻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자가 있어도, 하늘에 목숨을 맡기고 꺼리며 그것을 숨깁니다. 혹은 질병에 걸려도, 전적으로 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고, 의사나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무지한 민간의 약을 사용하여, 도리어 회복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색에 빠져서 돌이킬 줄을 모르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거나 누워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떤이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어린 자손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만들며, 어떤이는 자손을 기르는 데 있어 완강하고 포악하여, 그 자손들의 몸과 근육과 뼈를 다치게 하고, 그의 본성, 기운, 마음과 힘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도에 지나치도록 일을 하면서 쉬지를 않아서, 정신을 손상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체로 그들의 몸이 다할 때까지 그쳐야함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일찍 죽게 되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리석고 어두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새나 짐승이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역시 그쳐야할 바를 알고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기쁩니다. 사람이면서도, 새나 짐승만 못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심한 형벌을 폐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을 베풀었으며, 그 이후로부터 인구는 융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① 惠民署에 훌륭한 의사를 초빙하고 의약을 중흥시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 ② 活人署에 전염병치료병원을 개설하고 그 규정을 엄격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고, 병든 사람들을 힘써 구제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혜인서, 활인서 두 관청은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며, 이전 임금들의恤民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쇠약해지고 피폐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③ 가난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사람들과 신체불구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 ④ 아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범물을 만들어 아이를 양육케 하는 일입니다.
- ⑤ 남자나 여자가 독있고 해로운 것을 마시거나,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 ⑥ 시집간 여자가 독있는 것을 마셔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 ⑦ 부귀를 탐하여 자손의 불알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 ⑧ 남편이 부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일입니다.
- ⑨ 폭력을 써서 자손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 ⑩ 어려서 시집·장가가는 것을 금지하고, 옛풍속에 의거해 혼인년령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 ⑪ 아편을 피우는 것을 엄금하는 일입니다. (지금 비록 모든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예방하여 금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연하게 되어, 인간의 심신을 미혹하고 신체를 상하게 하고 정신에 해독을 끼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 ⑫ 인민들에게,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곧 약을 복용해야 하며, 무당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일입니다.
- ⑬ 널리 牛痘를 접종하는 것을 행하여, 사람들이 일찍 죽고 소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臣은 일본에서, 일본국민 중 젊은 사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나날이 문명화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 ⑭ 궁궐과 액정(掖庭)²⁶⁾, 민간의 거리나, 나라의 시내와 도랑에 이르기

26) 궁중 正殿옆에 있는 궁전으로 妃嬪·궁녀들이 거처했음.

까지, 깨끗이하고 똥·오줌·먼지·짚을 제거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한갓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농사에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궁궐과 掖庭으로부터 민간의 거리, 도로, 시내와 도랑에까지, 먼지가 쌓여 언덕을 이루었고 똥이 도금한 것 같이 되어 외국인들의 꺼림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관상 아주 보기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증발되어 반드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 ⑮ 가옥을 도로선 안에 짓는 것을 금지하고, 미리 곧은 도로의 선을 정하여 가옥의 기초를 세우도록 하며, 도로를 넓혀서 일정한 폭을 갖게 하고, 가옥의 높이를 높여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케 하므로써 후일의 폐해를 막고, 화재와 더럽고 누추함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옛날 집의 방과 지붕은 높고 넓었으며, 천정에는 또한 4각형의 구멍이 있어서 악취와 불피우는 연기를 배출시켰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방과 지붕을 낮고 좁게 만들고 또 천정의 구멍을 막았는데, 이것은 지식수준이 점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 ⑯ 민간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 ⑰ 옛풍속에 의거하여, 민가가 밀집된 곳과 도로가에 나무를 심어서 더러운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대기의 좋은 기운을 맑게 하는 일입니다. (공기의 유용성은 물과 더불어 같습니다.)
- ⑱ 水道를 잘 만들어 민간과 길에 물을 대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화재를 막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저 물이란 것은 세간에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맑고 깨끗이 하여 사람이 사용하면 건강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복·기구·가옥·길도 물이 아니면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또 민간의 가난한 백성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길올 틈이 없으며, 혹 문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나 가물어서 우물물이 말랐을 때는, 물의 귀함이 금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게 되어 크게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든 몸을 건강하게 보살피는 데 있어서 제일 급한 일입니다. 또 물에 독이 있으면, 끌어들인 물이나 우물물을 막론하고 모두 그 좋고 그름을 검사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써 병을 면하

게 해야합니다. 황해도 사람들 중에 장님이 많은 것은 또한 물에 독이 있기 때문이니, 깨끗한 물을 끌어들여서 그 해로움을 막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①⑨ 인민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때때로 몸을 닦게 하므로써 더러운 것과 전염병을 면하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5. 軍備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십시오.

군사력(武)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氣力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력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으며, 남의 모욕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軍備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안으로는 정치를 행할 수 없고, 밖으로는 이웃나라와 정당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력은 있으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태로워지고, 나라에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군사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군대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신다면, 먼저 그들에게 仁과 義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뜻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법을 세우고, 장수를 사랑하시며, 병졸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셔서, 군사들로 하여금 나라에 자신을 다바쳐서 보답해야 한다는 뜻을 품게 하시어, 전쟁에 임해서 죽음을 돌보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병사들이 나뉘어 흩어져서는 자신의 힘을 다하고, 모여서 부대를 이루어서는 앞을 다투어 적에게 나아갈 것이며, 따라서 병사들을 손발처럼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는 기율이 있는 군대이며, 장군이 비록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싸우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군대에 있어서 기율이 있고 없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고 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끌고 군대를 가르칠 때는, 禮를 가르

치고 義를 장려하여, 병사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무릇 사람에게 수치심이 있으면, 크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작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부끄러움을 알아, 그것을 미루어 넓혀 나라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칠 것 같으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장수와 재상이 위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며 국가의安危를 알지 못하고, 병사들과 백성들은 아래에서 반란을 생각하며 榮辱을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간첩이 그 틈을 타서 올 것입니다. 비록 백만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전쟁이 나면 창을 거꾸로 하고 도망갈 것이니,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吳起²⁷⁾가 魏侯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흥망은 덕에 있는 것이지, 지형의 험준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吳起는 명장이니, 어찌 나라와 군사를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무릇 帝王은 한 나라의 주인이며, 장수는 한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주인이 어리석고 교만할 것 같으면 나라를 망치게 되고, 우두머리가 어리석고 교만할 것 같으면 군대를 전복시키게 됩니다. 군대를 전복시키는 장수가 있는 것보다는 장수가 없는 것이 더 낫고, 장수가 없는 군대라면 차라리 군대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장군이란 직책에 있어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잘 선택하여 군대를 맡겨서, 군대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臣이 듣건대, “폐하께서는 외국인에게 품삯을 주어 병졸들을 가르치게 하면서도, 장수가 될만한 인재들은 가르치지 않으신다.” 하니, 진실로 이와 같으면 장수가 없는 병졸은 장차 어느 곳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병졸들은 배워서 알고, 장수들은 배우지 못하여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병졸들이 장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군사들을 맡더라도 능히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수는 반드시

27) 전국시대 衛나라 사람. 兵法에 밝았으며 저서로는 吳子 1권이 있다.

패배하는 장수가 될 것이니, 장수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군대에 舊式, 新式, 前軍, 後軍, 左軍, 右軍의 제도가 있어, 군법과 序列이 서로 다르고 서로 간섭할 수도 없어서,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서로 경쟁을 하여, 비록 한 나라의 군대일지라도 서로를 적과 같이 보고, 또 도로와 세간의 거리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면, 백성들은 병사들을 보기를 원수와 같이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할 것 같으면 절도가 없는 군대이니, 군대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두가지 것은, 禍와 亂의 근원이고 패망할 징조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삼국이 성할 때에, 고구려는 얼마 안되는 고립된 군사로 隋나라의 백만군을 무찔렀으며, 연개소문은 또한 2만의 병사로써 唐나라의 수십만 무리를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마음이 하나로 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거란과 전쟁을 해서 한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 끝내는 압록강 서쪽의 땅을 잃고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本朝는 임진왜란 때 패배하였고 병자호란 때 항복을 하였으나, 훼손된 땅과 백성, 물건 등에 대하여 치욕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本朝가] 비록 고구려보다도 盛大하나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수와 재상, 군사와 백성이 모두 다 이 치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힘써야 할 일 중에, 인민들에게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승리의 영광을 얻은 것과 패배의 치욕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실들을 肝과 肺에 새길 것 같으면 능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곧 회복되어 굳세지고 강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서기 1200년경에, 러시아는 내란으로 인해 몽고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왕들은 몽고의 신하앞에서 줄지어 섰고, 몽고의 사신이 러시아에 와서 순시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왕이 몸소 그들 맞이하여 친히 말고삐를 잡고서 인도하였고, 이 말에게 宗廟와 社稷의

祭器에 보리를 담아 먹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250여년간 하고서 1460년 경에 이르러, 러시아가 또한 몽고의 내란을 틈타 몽고인을 쫓아내고 스스로 일어서서 지금의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모두 장수와 재상이 道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병사들과 백성이 마음을 같이 했느냐 안했느냐는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현명한 재상과 지혜있는 장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한 병사와 백성이 있을지라도, 만일 군량미와 器械, 수레와 말이 없고, 길이 멀고 험하고 좁아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대를 내보내서 적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량미, 器械, 수레와 말을 헤아리고, 도로와 다리의 너비와 폭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운반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오늘 남쪽 변방에서 무슨 변란이 있으면 다음날에 북쪽 군대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 북쪽 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음날에 남쪽에 있는 군대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어, 변란을 진압하고 후환을 예방하는 일에 편의를 도모하십시오.

그러므로 兵事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됨과 신속함,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①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宗親과 전국 백성들 중에서 준수하고 젊고 의기가 왕성한 자들로 하여금 학교에 나아가서 장수와 병졸의 道를 익히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외국으로 보내어 유학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② 먼저 군대를 양성하는 경비를 계산하여 보통때 들어오는 세금으로 그 비용을 나누어 정하십시오. 그렇게 한후에 養兵을 도모하고 시작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급한 난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 ③ 전국의 군사는 옛날의 법식에 의하면 모두 兵曹에 속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모든 장수들에게 명령하게 하여서, 군대를 완전히 하나의 명령 체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 ④ 군대의 법률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 ⑤ 募兵의 법을 개정하고, 병역을 치루는 데 있어 期限에 제한을 두는

일입니다.

- ⑥ 水軍을 重興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수군이 필요불가결합니다. 故 統制使 臣 李舜臣은 수군의 명장이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였고, 또 병졸을 부리는 데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사람들이] 그 법도를 끝내 익히지 못하고 그 법을 더욱 새로이 해서 그 배를 손질하고 더욱 정밀하게 만들지 못했던 까닭에, 지금에 이르러 그 兵法과 그 배가 함께 없어졌으니 애석합니다.)
- ⑦ 무기고를 보수하고 무기를 수선하는 일입니다. (370년 전에 砲를 주조하는 기술자인 李長孫이, 폭발하여 터지는 포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震天雷라 하였읍니다. 이것은 서양보다도 앞선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재를 등용하고, 칭찬하여 표창하고, 그 무기를 수리하여 더욱 정밀하게 만들지 못한 까닭에, 모든 것이 쇠퇴하고 결단나서 전날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늘의 극한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 ⑧ 수만의 군대를 양성하면, 잠시 동안은 충분히 나라안을 평온하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일입니다.
- ⑨ 함경도와 평안도에 잘 가르치고 다스린 병사를 두어, 서쪽과 북쪽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 ⑩ 開國 이래로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서 죽어간 장수와 병졸의 후손들을 가없이 여겨 보살피시고, 또한 그 영혼들에게 제사지내서 장수와 병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6. 백성들에게 재주와 덕행과 문화와 기예를 가르쳐서 근본을 다스리십시오.

가르침이란 것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큰 바다에나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있을 때, 비록 南北을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나침판이 있으면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까닭에, 나침판은 사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사람이란 태어나면 아는 것이 없으니, 아는 자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먼저 그를 가르쳐서 인도하여 그의 지식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에 입학하므로써 그의 배움이 완성되는 까닭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이 세상에

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백성이 어려서 배우지 못할 것 같으면 커서 무식하게 되어,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얇고, 서로 믿는 의리가 얇으며, 輕舉妄動하고 앞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형벌을 받게 되니, 세상사람들과의 교제를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지식이 있는 자는, 혹 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더라도 그 벌의 적용을 마땅하다고 달게 여겨,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서 잘못을 고칩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죄에 대한 형벌에 불복하여 그 잘못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체로 무지하고 몰지각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뢰배들은, 是非와 曲直을 분별하지 못하고, 국법을 좇아 자신을 지키고 가문을 보전하며 재산을 보유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느날 아침에 난리가 일어나면 그 틈을 타서 봉기·운집하여,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남도 꺼리지 않는 태도로 참혹하고 흉폭한 난동을 일으키며, 멀리 내다봄이 없이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좇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죄명을 이루 다 나열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하면서, 養生과 음식 조절의 법을 알지 못하고, 남과 사귀어 세간에 처하는 道도 알지 못하며, 삶을 헤아려 몸을 안전하게 하는 방도도 모르고, 분발하여 무언가를 펼쳐 일으켜 세우려는 뜻도 없습니다. 게으름에 안주하고 빈궁함을 달게 받아 들이기만 하며, 세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모두 함께 빈궁하고 고생스런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교육을 받아 學識의 귀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학식을 배양할 때 비록 정신력을 소모시키고 재산을 소비하더라도, 자신을 채찍질하는 의지를 지니므로 학업을 완성하고, 마침내 세상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 돈을 써가면서 정부로 하여금 인민을 교육시키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직분을 알고 이치를 깨달아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고, 頑惡하고 흉포한 난동을 일으켜 인간의 보편적 義理

를 해치고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재앙을 未然에 막는다.’라는 것이니, 이미 빈궁해진 후에 빈궁을 구제하고, 이미 죄를 저지른 후에 죄를 다스리는 일과는, 利害와 좋고 나쁨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인민을 벌하는 정치만을 행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른바 ‘백성을 몰아다가 우물에 빠뜨린다.’하는 것입니다. 형벌이란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一人을 벌함으로써 萬人에게 경계를 보이고 公義를 보전하려는 까닭입니다. 하물며 그 죄인을 교육시켜 행복을 더해주고, 不德함을 바로 잡고, 빈곤을 구제하여, 드디어는 일국의 번영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개명한 나라에서는, 비록 옥에 갇힌 죄수들이라 할지라도, 옥중에서 설 교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여 허물을 고치고 善行으로 나아가게 하니, 이 어찌 훌륭한 일 중에서도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인간이 개명하게 되면, 정부에 복종하는 도리와 정부에 복종해서는 안되는 도리를 알게 되고, 또한 한 나라에 복종해서는 안된다는 도리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의와 염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개하고 무식한 국민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능히 壓制의 폭정을 견뎌내고 그에 안주하지만, 개명하여 이치를 아는 백성들은, 지혜롭고 강직하여 속박하는 정치에 복종하지 않고 그에 항거합니다. 그러므로 君權의 무한함을 공고히 하려 한다면, 인민으로 하여금 백치 바보가 되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인민이 바보 같으면, 그들은 나약하므로 가히 임금의 專權을 공고히 할 수 있겠지만, 인민이 어리석고 나약하면 나라도 역시 그것을 좇아 약해지므로, 天下萬國이 어리석고 약해진 연후에야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고, 임금의 자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헛된 말에 어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실로 한 나라의 부강을 기약하고 만국과 대치하려 한다면,

君權을 축소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만큼의 자유를 갖게 하고 각자 나라에 보답하는 책무를 지게 한 연후에, 점차 개명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게 될 것이며, 宗社와 君位가 모두 함께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朱子께서 이르기를, “왕궁에서 閭巷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않음이 없게 한다.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면 王・公으로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小學에 들여보내, 물뿌리고 청소하며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禮・樂・射・御・書・數²⁸⁾의 文을 그들에게 교육시킨다. 그들이 13세가 되면 天子의 元子・衆子²⁹⁾로부터 公・卿・大夫의 嫡子와 일반 백성 가문테의 수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大學에 들여보내,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로 잡으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道를 가르친다.”라고 하였으며, 『大學』에 이르기를, “大學의 道는 明德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으며, 지극히 선한 곳에서 머무는 데 있다.”; “옛적에 天下에 明德을 밝히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닦았다. 자신의 몸을 닦으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뜻(意)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의 앎(知)에 도달(致)하였는 바, 앎에 도달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格物) 데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또한, “天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워졌는데도 그 말단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朱子께서 이르기를,] “이른바 ‘앎에 도달하는 것(致知)은 사물의

28) 이른바 ‘六藝’

29) 元子 이외의 천자의 여러 아들.

이치를 연구하는 데(格物)에 있다.’라는 말은 자신이 앎에 도달하는 것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窮究함에 있음을 말한다. 대체로 사람 마음의 영특함에는 모를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치 없는 것이 없으니, 오직 이치에 대해 아직 궁구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앎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히 배우는 자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게 하여,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에서 출발하여 더욱더 궁구하여 그 極에 이를 것을 구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힘쓰는 것이 오래되어 어느날 아침에 豁然貫通할 것 같으면, 뜻사들의 외면과 내면, 精粗에 대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그 마음의 온전한 全體大用에 밝지 않은 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이 지극해지는 것’이라 한다.”[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無形產物은 지식인이 心力을 쓰는 데서 발생되고, 有形產物은 농부와 工人이 힘쓰는 것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며, 대저 上古의 현인·성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친 깊은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近世에 이르러서는 教化가 무너지고 良俗이 쇠미해져서, [사람들은] ‘格物致知’의 본뜻을 모르고 단지 글의 번지르르함을 玩賞하고, 옛글을 뒤적여 그 문구를 취하는 것만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四書三經과 諸子百家書를 읽고, 암송하고, 글을 지을 수만 있으면, 명칭하고 어리석은 썩어 빠진 儒者라 할지라도, 大學士라 불리어지고 上大夫의 반열에 들게 되어 백성과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쇠퇴하게 된 근본적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말단을 버리고 근본을 취하여,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格物窮理之學)으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론(平天下之術)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歐美에서 바야흐로 융성하고 있는 학문과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古人的] 道는 이미 그 傳授가 끊기어 窮理와 格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臣은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문이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용’을 앞세우고 ‘글의 화려함’(文華)은 뒤로 해야 합니다. 대저 ‘실용’이란 것은 꿀과 같은 것이고, ‘글의 화려함’이란 것은 꿀의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는 꿀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꿀이 그것의 향기로부터 생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實’을 버리고 그 ‘華’를 취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이 일시에 함께 무너져 버려서, 이욕고 뿌리없이 떠도는 겉(華)만 번지르르한 풍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臣은 다음과 같은 古事를 살펴보았습니다 : 신라에서는 경주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건물이 넓고 대단히 웅장·화려하였으며, 페르시아·인도·漢·唐·일본 및 우리나라의 古今奇寶를 진열하여 진실로 國中의 美觀이 된 바 있습니다. 壬辰年에 이르러 드디어는 갯더미가 되어 전혀 흔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에서는] 修身과 窮理·天文·地理·法律·醫藥·算數·音樂 등의 학문 및 漢·몽고·만주·일본·인도 등의 말과 글에 관한 학문을 가르쳐서, 후에 온갖 사물의 이치를 밝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今日에 이르러서는 그 실체(形)와 그림자가 모두 없어져 버려, 혹 그 이름(名)이 있어도 그 실체(實)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부가 인문학(文學)과 기술을 장려하여 窮理·發明의 길을 열지는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밝혀진 이치가 있어도 그것을 보다 깊이 궁구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미 밝혀진 그 이치마저 잃어 버렸으니 안타까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급무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널리 배워 이치에 통달한 선비를 맞아 들임으로써 나라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春宮³⁰⁾

30) ① 皇太子 또는 王世子の 별칭. ② 太子宮 또는 世子宮의 별칭.

殿下로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나아가 天地의 무궁한 이치를 밝히게 한다면, 文德과 재주, 技藝가 찬란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소홀히 하고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종교라는 것은, 인민이 의지하는 것이며 敎化의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종교가 쇠하면 나라도 쇠하고, 종교가 융성하면 나라도 융성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유교가 융성했을 때엔 漢나라가 강성해졌고,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인도 및 동양의 여러 지역들이 부강하게 되었으며, 이슬람교가 융성했을 때엔 西域과 터키 등 여러 지역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와 예수교가 융성하니 歐美의 여러 나라가 가장 강성합니다. 우리 조선의 유교와 불교도 일찍이 조금 융성한 때가 있었지만, 요즈음에 이르러 유교와 불교가 모두 무너져 버리고 국세가 차츰 약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儒敎를 다시 부흥시켜 文德을 닦을 것 같으면, 國勢도 또한 그것을 따라 다시 융성할 것을 기약하여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時運이 있어 인력으로 조작할 수 없으니, 모든 종교는 백성의 자유 의사에 맡겨 신봉하게 하고,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종교상의 爭論으로, 민심을 동요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命을 해친 일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거울삼아야 할 일입니다.

- ① 小學校와 中學校를 세워, 남녀 여섯살 이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 ② 壯年校를 세워, 한문이나 諺文으로 政治・財政・국내외의 法律・역사・지리 및 算術・理化學大意 등의 책을 번역하여, 官人 중에서 젊고 의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이것은 湖堂³¹⁾의 古事와 유사하며 그 이익은 만드시 클 것입니다), 혹은 八道로부터 壯年³²⁾의 선비를 징발하여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31) 조선시대 讀書堂을 고쳐 부른 이름. 독서당은 세종임금이 藏義寺를 集賢殿의 諸臣에게 내어주어 독서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성종때 湖堂으로 개칭되었고, 정조때 규장각의 기구를 넓히면서 폐지되었다.

때를 기다렸다가, 科學의 法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文官으로 택하여 동용하는 일입니다.

- ③ 먼저 인민에게 國史・國語・國文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국의 역사・文章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淸나라의 역사와 文章을 가르치는 까닭으로, 인민이 淸을 근본으로 삼아 중시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서적은 알지 못하는 데 이르고 있으니, 이것을 가르켜 ‘근본은 버리고 말단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민에게 법률・재정・정치・의술・窮理와 여러 재주, 技藝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 ⑤ 활자를 주조하고, 종이를 만들며, 또 인쇄소를 많이 설립하여, 서적을 풍요하고 넉넉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배우고자 하더라도 서적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까닭에, 문명국은 서적이 풍부합니다. 臣이 일본에 대해 부러워 하는 점은, 종이값이 싸고, 활자가 많고, 인쇄가 편해 서적이 풍부하고, 학교가 많아 학생이 많은 것입니다.)
- ⑥ 박물관을 설립하여 인민의 견식을 넓히는 일입니다.
- ⑦ 인민 중 혹 지식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때로 군중을 모아 세상일을 연설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루함을 열게 하는 일입니다.
- ⑧ 동서양 여러 나라의 어학을 융성하게 하여서 교류・친선에 편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 ⑨ 규칙을 정하여, 인민이 신문국을 설치하여 신문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입니다. (신문이란 것은, 조정의 일을 논의하고 官命을 공고하고, 관리의 進退와 항간에 떠도는 얘기, 외국의 형세, 학문과 예술의 성쇠, 경작의 豐凶, 물가의 高低, 무역의 성쇠, 민간의 고통과 즐거움, 生死와 存亡, 신기한 이야기 등을 실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이목에 새로운 것을 좇아 그것을 기록하고 혹은 그림을 붙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외에도 모든 사람 각자가 신문을 신뢰하여 모든 일을 널리 알리므로 크게 편리하여, 비록 방안에 문을 닫고 있어서 문밖 사정을 볼 수 없거나, 혹은 수역만리에 떨어져 고향소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신문을 보게 되면 명료하게 세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 꼭 직접 사물을 대하는 것같은 까닭에,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듣고 보게 하고 일의 사정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 중에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구미 여러 나라들은 신문국의 多少로써 나라의

문명 여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 ⑩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혹은 묻지 않고 묵인하면서 백성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정당하지만, 우선은, 종교 사원을 건축하여 화란을 야기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7. 정치를 바로잡아서 백성과 나라가 平定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정부가 맡은 바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안하게 다스려 속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 멋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교제를 보호하여 신의를 두텁게 하며 백성의 생업을 육성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청렴과 절개를 지키고 榮辱을 분별케 하며, 文·德·재주·技藝를 가르쳐서 이치를 궁구하고 새로운 것을 밝혀 내는 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政治가 일단 틀이 잡히면 고치지 아니하며,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게 하고 속이거나 거짓됨이 없게 하면, 백성들이 나라의 법에 의지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생산을 계획하게 되어, 굶주림과 추위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백성들의 소요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의 침입이 없게 하며, 정부가 中庸의道を 지킬 수 있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人心이 위태롭고 道心이 미약할지라도, 오직 세밀함(精)과 한결같음(一)이 있다면, 진실로 그 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어질고 관리가 정직하여, 어디에도 편벽됨이 없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며, 백성을 가르치기를 자식과 같이 한다면, 곧 백성과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포악하고 관리가 부패하여 간사한 무리를 가까이 하고 사악한 것을 좋아하며, 백성을 보기를 원수같이 하며, 백성을 다스리기를 짐승과 같이 한다면, 곧 백성과 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大學』에 이르기를, “『詩』에서, ‘우뚝 솟아있는 저 남산이여, 바위들이 첩첩이 쌓여 있구나. 위엄이 넘치는 太師와 尹氏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들을 우러러 보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라를 맡은 사람은 삼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편벽될 것 같으면 천하 사람들로부터 誅戮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인민이 있으면 정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부가 존재하면 다스림의 이치가 있게 되며, 다스림의 이치가 있으면 議論이 있게 됩니다. 또 議論이 있으면 異・同이 있게 되고, 異・同이 있으면 縱・橫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縱・橫이 있으면 黨이 이루어져서 각각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옛날의 ‘朋黨’이며, 지금의 ‘政黨’입니다.

만약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다면, 中을 얻고 편벽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어 옳지 아니한 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 中을 잃고 편벽됨에 이르게 될 것이며, 禍亂이 이 기회를 타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臣이 조정의 옛날 일들을 살펴보니, 西人・南人・大北・小北 등의 分黨들이 서로 비난하고 배척했으며, 역적의 이름(逆名)을 거짓으로 꾸며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近代에 이르러서는,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나뉘었는데, 이들 역시 옛날의 ‘黨’과 같아서 國體의 보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朋黨’이라고 부름이 마땅할 것입니다.

몇해 전에 이르러 黨派가 또 다시 2개로 나뉘었는데, ‘새로운 것에 나아가고 自立한다.’는 입장과 ‘옛것을 지키고 남에게 의존한다.’는 입장이 바로 이들입니다.

臣 등은, 나라의 事勢가 급박한 것을 보고서 헛되이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나라의 부흥을 급히 도모한 나머지 잔혹하고 망령된 舉事³²⁾를 감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臣 등의 黨)은 國體의 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마땅히 ‘政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어 국가에 충성하는 黨을 보호하셔서, 국체를 보존하시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곧 禍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32) 甲申政變(1884)을 말함.

- ① 폐하께서는 친히 모든 政事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관원들에게 각각 맡기는 일입니다.
- ② 어진 재상을 택하여 政務를 전담케 하는 일입니다.
- ③ 宗室을 숭상하여 종묘사직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 ④ 모든 직무는,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맡게 하여 그 政事를 다스리게 하는 일입니다.
- ⑤ 公・卿・大夫로 하여금 정무를 다스리게 하고 하급 관리에게는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 ⑥ 작은 縣을 합하여 큰 縣을 만드는 일입니다.
- ⑦ 작위와 財寶로써 功에 대해 상을 줄 수 있으나, 관직으로 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⑧ 외국인에게 관직과 직위를 주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⑨ 四色黨派로 하여금 옛 증오를 풀고 서로 혼인하게 하며, 정부에서도 그들을 분별하지 않는 일입니다.
- ⑩ 縣의 관리와 재판관은 人望에 따라 등용하는 일입니다.
- ⑪ 縣會라는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일을 의논하게 하여, 公私 양쪽이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현 정부의 山林³³⁾과 府縣의 座首들은, 儒學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바램에 따라 선발되어 백성과 나라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있으니, 本朝 역시 임금과 백성이 함께 통치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臣이 전날에 듣기에, “다스림(治)과 德이 융성할 때 山林의 권위는 온 세상을 움직였고, 나라의 중대한 일은 반드시 議論을 거친 후에야 정책을 시행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제도를 더욱 넓히어 점차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이르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문명의 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³⁴⁾가 있고 임금에게 권위의 한계가 있으면, 백성과 나라가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가 없고 임금의 권한이 무한하다면, 비록 잠시 강성한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쇠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에 일정한 틀이 없이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

33) 山林의 뜻은 ① 隱者가 숨어 사는 시골. ② 山林處士(학력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글만 읽으며 사는 선비)의 두가지가 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양쪽 다 의미는 통한다.

34) 自由之權

입니다.)

- ⑫ 淸은 조심스럽게 대하고, 러시아와 신중히 화합하며, 미국에 의탁하고, 일본과 친교하며,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국교를 맺는 일입니다.
- ⑬ 신뢰로써 외국과 교류하여 배신하지 않으며, 또 더불어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경솔하지 않는 일입니다. (臣 등은 그 이익과 손해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 ⑭ 외국과 교류할 때, 主權을 잃거나 國體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8.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몫의 自由를 갖게 하여서 元氣를 배양토록 하십시오.

하늘이 백성을 내려 주셨으니, 모든 백성은 다 동일하며, 타고난 성품에 있어서는, 변동시킬 수 없고 천하 일반에 통하는 불변의 도리(通義)가 존재합니다. 그 通義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自由를 구하여 행복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孔子께서 이르길, “三軍으로부터 그들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보통사람으로부터 그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곧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政府를 세우는 본래의 뜻은, 이러한 通義를 공고히 하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것이지, 帝王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通義를 보호하여,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것 같으면, 權威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그 通義를 벗어나,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백성은 반드시 그 정부를 갈아치우고 새롭게 세우므로써 그 커다란 趣旨를 보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의 公義이며 職分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제법(公法)에 있어서는, 國事犯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文明의 公義이며 하늘의 지극한 이치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의 본성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舊習을 고치지 못하고 이를

따르면서, 우선 당장에 탈없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政府를 볼 것 같으면, 하루 아침의 갑작스런 거사로써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一身의 안락함을 보존할 수 없고, 一身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재물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人生의 大義를 잃는 것이며, 당장의 편안함을 취하려는 입장은 더 이상 가능할 수 없어서, 반드시 자유를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미국은, 영국의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안이한 태도를 바꾸었으며, 드디어는 자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법은 관대해야 하며 인민을 속박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해야 하니, 선비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선비가 될 수 있고,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농부가 될 수 있으며, 工人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工人이 될 수 있고, 상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상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비, 농부, 工人, 상인 간에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문벌을 논해서도 안됩니다. 또 정부의 지위로써 인민을 경멸해서는 안되며, 上下와 貴賤은 각자의 본분을 얻어서, 터럭 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하늘이 내려준 재주와 德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貴賤이라는 것은 단지 공무를 맡은 관리의 지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알고 이치를 분별하며 마음(心)을 써서 道에 통달한 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신분이 귀해지는 것이며, 글을 모르고 힘(力)을 써서 일하는 자는 細民(지위가 낮은 빈민)이 되어 신분이 천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민이 스스로 자유를 보존하는 大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자는, 인민으로 하여금 그들 몫의 자유를 얻어 넓고 큰 기운(浩然之氣)을 기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혹한 정치로 풍속을 해치고 通義를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미국의 정부는, 노예를 금지하는 일 때문에 큰 전쟁을 치루었고, 마침내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온 세계도 역시 미국을 뒤따라 노예를 금지시켰으니,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臣은, “폐하께서 뛰어난 英斷으로 공과 私의 노비를 폐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인의 정치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감복하고 기뻐했을 것이며, 이후에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臣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聖朝가 장차 흥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직도 인민으로 하여금 그 通義라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몇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그 권리에 있어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자와 여자의 질투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부인이 있으면서도 첩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그의 부인을 멀리하거나 혹은 쫓아내기도 하지만, 부인은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또한 이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법률에서 여자의 간음만을 금지하고 남자의 간음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는 그의 부인을 잃어도 또 다시 장가들 수 있으나, 여자는 그 남편을 잃으면 비록 혼례를 치루지 않았더라도 다시 시집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친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班・常・中・庶의 등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나라는 同類의 사람들과 同祖의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貴賤을 정하여 서로 시집・장가가지 못하게 하며, 上下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드디어는 異類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兩班이라 일컫는 자는, 비록 열등할지라도 영원히 귀한 신분이며, 常民이라 일컫는 자는, 비록 재주와 덕이 있어도 영원히 천한 신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귀한 신분의 사람들과 남자들이 禮를 제정하고 제도(法)를 만들어, 스스로 귀하게 하고 스스로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녀자와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와 제도를 만들게 한다면, 어찌 이러한 편벽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인간으로써 다른 사람을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를 짐승과 같이 하여서 同類의 인간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 世俗을 어지럽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義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바, ‘야만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것들은, 정말로 하늘의 이치를 해치고 사람의 도리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시아洲의 옛풍속과 옛관례를 계승한 것이라고 해도 빨리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歐美의 사람들이 항상 아시아洲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나쁜 풍속이 있기 때문이니, 어찌 수치와 욕됨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나쁜 풍속을 빨리 고쳐 좋은 풍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聖朝의 文明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自由라는 것은,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天地의 이치만을 따른다면 아무런 속박도 굶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면서, 서로 모자라는 점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自由의 일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속의 通義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의 법률에도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자유를 버린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야만적인 자유를 버리고 온 세상에 통용되는 공동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법률을 만들어 사람의 죄를 규제한다면, 비록 하늘이 부여해 준 자유를 감소시킨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處世之自由)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법률을 만들어 사람의 뜻(志)을 구속하고 압박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가혹한 정치인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어도 벌을 받지 않으며, 힘으로 멋대로 포악하게 구는 것은, 야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법이 비록 관대해도 범죄는 없으며, 힘에 의해 다스려 지지 않아

도 마음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문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혹은 家長이나 친족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혹은 士·大夫나 세력있는 호족에게 굴욕을 당하니, 어찌 그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난 절제이겠습니까? 곧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 절제되어지니, 그 때문에 기가 죽고 힘이 잔약해집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臣은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이치를 다치게 하고 사람의 도리를 잃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찌 그들을 돌아보고 구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① 어명을 내려서,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을 금지하며, 과부가 임의대로 개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 ② 양반(班)·상민(常)·중인(中)·서민(庶)이 임의대로 서로 혼인하도록 하고, 재주와 덕이 있는 자라면 신분이 천할지라도 그를 大官에 등용하는 일입니다.
- ③ 때때로 인민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탈 수 없으며, 사람을 쓰는데 있어 짐승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깨우치게 하여, 수레·말·소로 그것을 대신할 것 같으면, 점차 그것이 수치임을 알게 되어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8가지 조항은, 단지 서울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감히 全國을 들어 統論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박해 보이는 견해를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참으로 아는 자이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사실 모르는 자입니다.

〈부록〉

서울大學校附設 韓國政治研究所 研究員 名單

소	장 :	吉	昇	欽
연구위원 :	具	永	祿	
	金	世	均	
	金	榮	國	
	金	弘	宇	
	朴	贊	郁	
	安	清	市	
	李	正	馥	
	張	達	重	
	崔		明	
	黃	秀	益	
운영위원회 :	吉	昇	欽	
	具	永	祿	
	金	榮	國	
	金	容	九	
	林	鍾	哲	
	曹	大	京	
	崔		明	
	韓	相	福	
	韓	完	相	
조	교 :	權	赫	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한국정치연구소규정

제정 1986. 12. 24. 규칙 제69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한국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한국 정치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연구·학술세미나 개최와 이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등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두고, 연구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보조연구원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보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

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업 계획의 수립

2. 연구과제 선정

3. 연구결과의 평가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6 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